기자들의 눈

2023년 12월 28일 (목) ijournalist.co.kr 일간 인터넷판 제153호 TEL 032-433-8081

송도테마파크, 인근 부지개발 이기적 '갑질' 논란

아파트 가린다…공·사 구분과 정치적 표심 계산?
송도유원지 향후 70층 아파트 허가 요구도 부상

송도테마파크 [사진 제공=인천시]

송도테마파크 개발 토지와 70층 아파트 단지 옆 부지 도시개발(연수구 동춘동 일대) 용도변경을 교환 추진하려고 해도 동춘동 인근 약 2000세대 단지는 길 건너 시야에 존치하고 있지만 내 아파트가 가린다는 일부 이기적인 개발 거부의 주장이 나와 시선이 곱지 않다.

실제 송도테마파크가 들어서는 부영그룹 부지를 두고 충돌이 일고 있다. 현재 송도테마파크 옆 부지에 70층짜리 공동주택이 계획됐다. 그러나 경관 환경을 망칠 것이란 소리다. 향후 송도유원지 인근도 70층짜리 아파트 개발을 요구해 도시개발 사업은 꼬여만 가 고민이 깊다.

수십 년간 한 걸음도 못 나갔던 송도테마파크 인근 개발은 환경 문제로 논란이 컸다. 이제 탄력적 개발을 해야 슬럼화가 된 부지가 조속히 방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여론이다. 문제는 아파트가 가린다는 주장과 정치인도 표심 영향력 때문인지 한술 더 뜨고 있다.

슬럼화된 토지 개발은 연수구 정치인·주민은 전사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송도테마파크 옆 다른 단지도 있다. 공원화된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환경이 달라져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젊은 층과 중년 가구의 문화적 차이는 있다는 의견이다.

유원지 개념의 송도테마파크는 아파트 인근에 개발되면 시끄러운 환경은 뻔해 주거환경이 존치하는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한다. 그래서 현 70층자리 아파트부지가 들어설 토지와 교환하여 그림을 다시 그려 개발하는 것이 미래가치의 경관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개발에 대한 연수구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결정권은 인천시에 있다. 송도테마파크 길 건너 아파트에 연수구청장이 살고 안 살고, 표심을 떠나 송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라는 지적이 있다. 공·사를 구분해 달라는 쓴소리와 민간 갑질이 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현 부지에 송도테마파크와 아파트가 그대로 건축되면 송도유원지 쪽에서도 추후 도시개발에 있어 유원지의 토지도 아파트 70층으로 똑같이 허가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고층 과밀화로 성냥갑 도시미관에 영향을 줄 것이란 가능성은 열려있다.

특히 꽉 막힌 아파트 환경이 전개될 전망이라 어려움이 크다고 개발과 관련된 관계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현 송도테마파크에 70층이 들어설 부지로 옮기고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공원화 등 시야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를 추진하자는 의견은 공원화된 쪽으로 무게감이 실린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5년 연수구 동춘동 일대 토지를 매입해 60여만㎡에는 공동주택을 짓고, 50여만㎡에는 송도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가 조건은 '송도테마파크를 취소하면 도시개발사업도 취소, 송도테마파크 사업 준공 3개월 전 분양과 착공 금지'란다.

최근 인천시와 부영그룹의 인가조건을 송도테마파크 부지와 도시개발부지를 교환해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 사업 아파트 분양·착공 금지를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착공할 때 분양·착공'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자 "해당 사업은 테마파크를 선행한 뒤 주택 건립이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사업 협의는 가능하지만, 맹꽁이 이전과 환경오염 정화는 무조건 선 조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본 사업 방향에 변화는 없다"라고 특혜 가능성을 차단한 바 있다.

송도테마파크 주무부서에 따르면 아파트 고층이 즐비한 현상은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문제로서 도시개발 부서의 일이지만 송도테마파크가 선 해결이 되어야 풀리는 문제로서 송도 도시의 장기 슬럼화된 토지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말경 맹꽁이 이식은 완전히 해결했다. 토양 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영그룹에서도 아파트 토지와 송도테마파크를 교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시간은 길어지고 있어 꼬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영그룹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수구는 개발에 있어 오염된 토지의 토양을 배출자 신고가 들어가면 허가해야 한다.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협조와 시급성은 지역 상권의 상승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은 빨리 매듭을 짓기를 바라고 있다.

/김양훈 위원
/최재윤 기자

인천시, 시민의 삶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2023 인천 사회지표 결과 홈페이지 공표

인천광역시는 28일 '2023년 인천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표했다.

2023년 인천의 사회지표는 올해 8월 1일 기준 인천시 표본 9000가구 내 13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구·건강·가구와 가족·사회통합·안전·환경 등 11개 부문 172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방식은 현장방문과 비대면(인터넷)을 병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삶'과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77점(10점 만점)과 3.50점(5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높아진 것(0.11점/0.04점↑)으로 나타났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응답자의 48.0%가 육아지원 정책 중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출산비 지원(38.1%)',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31.5%)' 등으로 나타났다.

일(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42점(5점 만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중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3.50점, '임금/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3.23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04점, 0.07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애로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25.7%가 '희망 임금수준 불일치'로 답했다.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으로는 '육아부담 또는 가사부담'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환경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36점(5점 만점)으로 전년(3.26점) 대비 증가하는 등 의료·보건 환경(3.35점→3.52점), 교육환경(3.28점→3.41점), 수질 환경(3.22점→3.37점), 대기환경(3.02점→3.15점), 문화·체육 환경(3.07점→3.19점)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지하철이 3.95점으로 가장 높았다. 시내/마을버스(3.81점), 시외/고속버스(3.59점), 택시(3.58점) 순으로 높았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 도시 대비 인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3.41점(5점 만점)으로 전년(3.38점) 대비 증가했다. 이외에 교통사고(3.17→3.31), 화재(3.32→3.39), 감염병(2.77→3.06), 범죄위험(2.78→2.88) 등 모든 항목에서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 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6.77점(10점 만점)으로 전년(6.66점) 대비 0.11점 올랐다. 현재 거주지역에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44.4%로 전년 대비 8.2%p 증가했다.

또한, 거주지역에서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의 23.9%가 '노인복지'를 꼽았다. 주거복지(23.5%)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인천 사회지표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인천데이터포털→통계정보→통계간행물→사회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회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인천형 정책을 마련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

인천시설공단,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전국 1위 올라

인천시설공단이 '2023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5개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매년 실시하는 평가 지표로 올해는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383개 지방공기업의 서비스 이용고객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시설공단은 90.1점으로 지방공기업 평균 대비 8.4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사회적 만족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김종필 이사장의 내부 만족을 중점으로 시민 행복 달성이라는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공단은 조직문화와 직위명 개선 등의 노력과 함께 2023년 한국서비스진흥협회로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관(SQ) 재인증을 통해 대외적으로 서비스품질 및 시민만족경영 분야 전반에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제설작업과 환경정비 등 인천 전역에 있는 현장에서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직접 직원들과 부딪히며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한 결과이다.

김종필 이사장은 "이번 고객만족도 결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직원들의 만족이 어떻게 인천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제공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성과"라며"앞으로도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윤 기자